



[우유급식] 아일랜드, '세계 학교우유의 날' 기념 행사 운영

- 2주간 무상 우유 공급, 종이빨대 교체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지난 29일 제21회 세계 학교우유의 날을 맞아 아일랜드에서도 우유와 가치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있어 우유 급식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오는 10월 15일까지 우유급식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2주간 무상 우유가 공급될 계획이며, 낙농위원회(NDC)는 그리기대회를 통해 수상자에게 복싱 금메달리스트이자 학교우유 홍보대사의 싸인이 담긴 글러브를 제공하고 학교에는 스포츠 용품 구입을 위한 500유로(약 69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학교우유에 공급되는 제품의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빨대로 교체하고 재활용 가능한 테트라팩 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7톤의 플라스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무부 장관도 성장기 어린이들의 필수 영양소 섭취에 있어 학교우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학교우유 급식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 출처 : farmersjournal.ie, 9월 29일 >

[업계동향] 中 유업체, 파키스탄에 버팔로 우유 생산 단지 구축 박차

- 구제역 청정 목장 설립, 분유, 치즈 등 생산 예정



중국 유업체인 로얄그룹이 파키스탄에 버팔로 우유 생산 단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유제품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업체관계자는 파키스탄 계획·개발부 장관과 만나 고품질의 원유 생산을 위한 구제역 청정 목장을 설립하고, 분유와 모짜렐라 치즈를 생산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또한, 파키스탄 전역에 6개의 연구소를 설립해 버팔로 번식과 배아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출처 : profit.pakistantoday.com.pk, 9월 29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